

WWF Korea  
**BRIEFING  
REPORT**

2023. 01

**아시아 은행 ESG 도입 현황**

2022 SUSBA 평가와 국내 시사점

**2022 SUSBA ANNUAL REPORT**

WWF(World Wide Fund for Nature, 세계자연기금)

WWF는 독립적인 자연보전기관으로, 세계 100여 개국 글로벌 네트워크 및 지역 리더십을 통해 3,500만 명 이상의 서포터즈와 함께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WWF는 지구의 자연 파괴를 막고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미래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재생 가능한 자연자원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이용하도록 방향을 제시하며, 환경오염 및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자 인식 증진 활동에 힘쓰고 있습니다.

# I. SUSBA 평가보고서 소개

## SUSBA 평가보고서 도입 배경

SUSBA는 은행들이 경영 및 금융 활동을 함께 있어서, ESG(환경, 사회, 거버넌스) 요소를 은행의 전략과 의사 결정 절차에 얼마나 반영하는지, 이른바 'ESG 통합' 성과를 다각적으로 평가하고, 개선점을 제시함으로써, 은행들의 지속가능금융 도입과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SUSBA는 지속가능성보고지침(GRI, Global Reporting Initiative), UNEP의 책임있는금융원칙(PRB), 기후관련재무공개태스크포스(TCFD), 지속가능성회계표준위원회(SASB) 등 여러 글로벌 표준을 고려함과 동시에 은행이 ESG 전략, 로드맵, 실행계획 등을 수립·시행에 도움이 되는 요소들을 평가 항목으로 선정 하고 있다.

## SUSBA 평가보고서 프레임워크 및 2022년에 새롭게 도입 된 내용

WWF SUSBA 평가 프레임워크는 은행들의 **목적(Purpose)**, **정책(Policy)**, **절차(Process)**, **임직원(People)**, **금융상품(Product)**, **포트폴리오(Portfolio)** 등 6개 부문(76개 sub-indicators)에서 ESG 요소가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올해는 **팜오일**과 함께 **에너지**, **수산업** 부문의 여신정책에 관한 세부 분석 결과도 함께 다뤘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채점 시스템은 각 지표에 대해 0, 0.5 또는 1점을 할당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1은 은행이 지표에 언급된 모든 측면을 이행함을 의미하고 0.5는 부분 이행을 의미한다. 또한 올해 **불법 야생 동물 거래와 관련된 새로운 지표 하나를 추가하였다(1.2.1.16)**.

평가를 위해 검토된 은행 정보에는 연례 보고서, 지속 가능성 보고서 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보고서 형식의 공개적으로 사용 가능한 공개 정보와 회사 정책, 진술, 투자자 프레젠테이션 및 보도 자료와 같은 기업 웹사이트에 게시된 정보만 포함한다.

SUSBA는 WWF-싱가포르 ASFI(Asia Sustainable Finance Initiative)<sup>1</sup> 지원을 받으며, ASFI는 산업,

<sup>1</sup> The Asia Sustainable Finance Initiative(ASFI)는 글로벌 산업, 학계 및 과학 기반 리소스를 통합하여 해당 지역 금융기관이 중요한 ESG 위험 및 기회를 인지하고 전략,투자 결정에 이를 통합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SFI는 6가지 중점 영역인 표준화(standards), 연구 및 도구(research and tools), 참여(engagement), 녹색 금융 솔루션(green financial solutions), 규정 및 지침(regulations and guidelines), 역량 구축(capacity building)을 위해 활동 중이다. 일부 주

학계, 연구기관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연합으로 아시아 지역 금융 기관의 ESG 구현과 이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이니셔티브이다.

## 2022년 SUSBA 평가 대상 국가

올해 여섯 번째로 시행된 SUSBA에는 기존 아세안 회원국인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등 6개국의 36개 은행, 한국의 5개 은행, 일본의 5개 총 46개 은행이 주요 평가 대상으로 참여했다. **국내 참여 은행은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등 총 5곳**이다.

1 일본	2 한국	3 인도네시아	4 말레이시아	5 필리핀	6 싱가포르	7 태국	8 베트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즈호은행 (Mizuho Bank, "미즈호")</li> <li>■ 미쓰비시 UFJ은행 (Mitsubishi UFJ Financial Group Bank, "MUFG")</li> <li>■ 리소나은행 (Resona Bank, "리소나")</li> <li>■ 미쓰이 스미토모 은행 (Sumitomo Mitsui Banking Corporation, "SMBC")</li> <li>■ 미쓰이 스미토모 신탁은행 (Sumitomo Mitsui Trust Bank, "SMTB")</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나은행 ("하나")</li> <li>■ KB국민은행 ("KB국민")</li> <li>■ IBK 기업은행 ("IBK기업")</li> <li>■ 신한은행 ("신한")</li> <li>■ 우리은행 ("우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센트럴 아시아 은행(Bank Central Asia Tbk, "BCA")</li> <li>■ 만다리은행(Bank Mandiri (Persero) Tbk, "만다리")</li> <li>■ 무아말랏은행 (Bank Muamalat Indonesia Tbk, "무아말랏")</li> <li>■ 네가라은행(Bank Negara Indonesia Tbk, "BNI")</li> <li>■ 파닌은행(Bank Panin Tbk, "파닌")</li> <li>■ 자와바랏·반텐지역 개발은행(Bank Pembangunan Daerah Jawa Barat dan Banten Tbk, "BJB")</li> <li>■ 페르마타은행 (Bank Permata Tbk, "페르마타")</li> <li>■ 인도네시아 국민은행(Bank Rakyat Indonesia Tbk, "BRI")</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MMB 홀딩스 (AMMB Holdings Berhad, "AmBank")</li> <li>■ बैं크 이슬람(Bank Islam Malaysia Berhad, "BI")</li> <li>■ 말레이시아 국민협동은행 (Bank Kerjasama Rakyat Malaysia Berhad, "BR")</li> <li>■ CIMB 그룹 홀딩스(CIMB Group Holdings Berhad, "CIMB")</li> <li>■ 흥령은행(Hong Leong Bank Berhad, "흥령")</li> <li>■ 말레이은행 (Malayan Banking Berhad, "MayBank")</li> <li>■ 퍼블릭은행 (Public Bank Berhad, "퍼블릭은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DO 유니뱅크 (BDO Unibank, Inc, "BDO")</li> <li>■ 필리핀은행 (Bank of the Philippine Islands, "BPI")</li> <li>■ 차이나은행 (China Banking Corporation, "CBC")</li> <li>■ 메트로은행 (Metropolitan Bank &amp; Trust Company, "메트로은행")</li> <li>■ 필리핀 내셔널 뱅크(Philippine National Bank, "PNB")</li> <li>■ 리잘상업은행 (Rizal Commercial Banking Corporation, "RCBC")</li> <li>■ 시큐리티 뱅크 (Security Bank Corporation, "SBC")</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싱가포르 개발은행 (DBS Group Holdings Limited, "DBS")</li> <li>■ 화교은행 (Oversea-Chinese Banking Corporation Limited, "OCBC")</li> <li>■ 대화은행 (United Overseas Bank Limited, "UOB")</li> <li>■ 필리핀 내셔널 뱅크(Philippine National Bank, "PNB")</li> <li>■ 리잘상업은행 (Rizal Commercial Banking Corporation, "RCBC")</li> <li>■ 시큐리티 뱅크 (Security Bank Corporation, "SBC")</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콕은행 (Bangkok Bank, "BBL")</li> <li>■ आयुतायान्क (Bank of Ayudhya, "크롱스리")</li> <li>■ 카시콘은행 (Kasikorn Bank, "KBank")</li> <li>■ 크룽타이은행 (Krung Thai Bank, "KTB")</li> <li>■ 시암상업은행 (Siam Commercial Bank, "SCB")</li> <li>■ 타나차트은행 (Tanachart Bank, "TBank")</li> <li>■ TMB은행 (TMB Bank, "TMB")</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베트남 투자 개발은행 (Bank for Investment and Development of Vietnam, "BIDV")</li> <li>■ 베트남 대외 무역은행 (Joint Stock Commercial Bank for Foreign Trade of Vietnam, "VCB")</li> <li>■ 베트남 산업 통상은행 (Vietnam Joint Stock Commercial Bank for Industry and Trade, "VietinBank")</li> <li>■ 베트남 수출입은행 (Vietnam Export-Import Joint Stock Bank, "EximBank")</li> <li>■ 베트남 번영은행 (Vietnam Prosperity Bank, "VPBank")</li> </ul>

요 ASFI 이니셔티브에는 벤치마킹 도구인 RESPOND, SUSBA 및 SUSREG와 지역의 역량 구축에 중점을 둔 ASFI Academy가 포함된다.

## II. 2022 SUSBA 평가결과 주요 내용

### 1. Key Findings

#### 1) 2022 SUSBA Highlight

##### 기후금융 역량 강화 추세, 2050 Net-Zero

아시아 은행들의 2050년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한 금융배출량(financed emission) 통제 계획의 참여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과학기반목표설정(SBTi, Science based Target by Sector)<sup>2</sup>에 참여하는 은행들의 비중은 2021년 7개(15%)에서 → 2022년 18개(39%)로 증가하였다.

##### 자연손실 리스크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준비는 아직 미흡

대부분의 은행들은 자연손실 관련 리스크를 인지(recognition)하고는 있지만, 이에 대비하여 정책을 설정(implementation of policy on nature loss risk)하거나 고객 협력(client expectation)을 요구하는 등의 역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TNFD 프레임이나 각종 자연손실 및 생물다양성 관련 국제기준이 발표되면, 기후변화 대응에서와 마찬가지로 은행들은 새로운 기준에 부합하는 목표설정과 리스크 측정, 이행계획 등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 은행간 격차 점차 심화

SUSBA평가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선두그룹 은행들은 2022년에도 계속해서 환경 및 사회리스크 관련 정책 수립과 실천을 이행하고 있는 반면, 절반 이상의 은행들이 2021년 이후로는 환경 및 사회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큰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선두그룹에 속한 은행들과 그렇지 못한 은행 간 격차가 점차 커지고 있다.

##### 금융당국의 역할 중요

금융기관간의 환경 및 사회리스크 관리 수준 격차를 좁히고,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각국 금융당국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금융당국이 환경리스크 관련 최소기준을 마련하고, 은행들이 이를 실천하기 위한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뒤쳐진 은행들이 환경 및 사회리스크 관리 역량을 마련하기 용이해질 것이다.

---

<sup>2</sup> SBTi는 파리기후협약 이행을 위해 기업의 탄소배출 감축 목표설정을 돕고 이를 검증하는 글로벌 이니셔티브이다. SBTi는 세계자연기금(WWF), 탄소공개프로젝트(CDP), UN글로벌컴팩트(UNGC), 세계자원연구소(WRI)가 공동 운영한다.

## 산업별 세부 제언

### 팜오일 등 상품관련 공급망 추적성 강화해야

은행들은 팜오일 산업 관련 정책이 팜오일 생산뿐만 아니라 가공, 유통, 판매에 이르는 모든 상위 및 하위 (upstream, midstream, downstream)공정에 참여하는 고객들로 확대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 고객에 대하여 그 고객이 거래하고 있는 거래처(client's supply chain)에 대해서도 파악할 수 있는 공급망 추적성(supply chain traceability)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향후, EU, 미국, 영국과 같은 팜오일 관련 주요시장에서 아시아 팜오일 수출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따라서, 은행들은 미리 팜오일 산업 전반에 관련된 고객들에 대한 인증(certification)과 공급망 추적성(supply chain traceability)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역량을 선제적으로 갖출 필요가 있다.

### 에너지 산업 이행계획 및 목표 설정해야

SUSBA 평가에 참여한 아시아 은행들 중 에너지 분야 관련 정책을 발표한 은행의 비중은 '21년 13개(29%)에서 → '22년 23개(49%)로 크게 증가하였고, 에너지 분야 상품과 서비스를 출시한 은행의 비중은 '21년 25개(54%)에서 → '22년 32개(70%)로 기후변화 관련 은행들의 리스크관리 역량이 크게 강화된 것을 알 수 있었다. SUSBA 평가는 기후변화 관련 정책에서 선두그룹에 속한 은행과 그렇지 못한 은행간의 역량 차이는 과학기반 목표설정(Science based Target)분야에서 발생한다고 보았다. **전체 SUSBA평가에 참여한 은행 중 5개(11%)만이 에너지 분야 과학기반 목표설정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 수산업 관련 환경 및 사회리스크 역량 강화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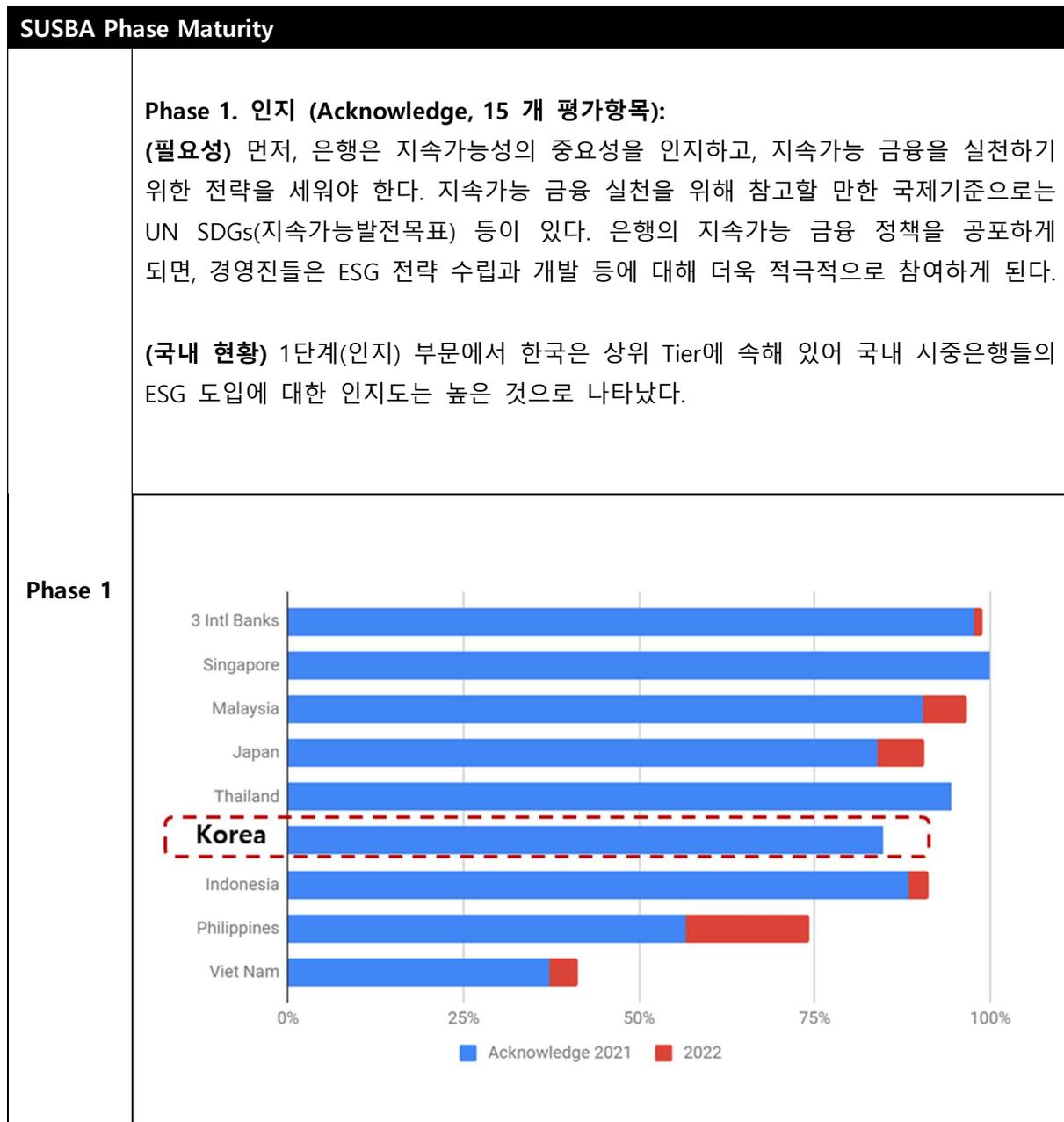
아시아 은행들은 대부분 수산업 관련 환경 및 사회리스크 관리 정책분야에서 미흡한 실정이다. SUSBA 평가에 참여한 은행 중 23개(50%) 정도가 수산업 관련 환경 및 사회리스크 문제에 대한 인식(recognition)은 있으나, **9개(20%)** 만이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공시(disclosure)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은행은 어획관련고객(wild catch client)에 관한 정책은 수립된 반면, 양식업(aquaculture)이나 가공 및 유통, 판매업(downstream sector client)에 종사하는 고객에 대한 정책은 더욱 미흡한 상황이다.

향후, 은행은 수산업 관련 국제기준을 참고하여 은행 정책을 수립(implementation of policy)하고, 수산업 관련 포트폴리오 리스크를 측정(E&S risk assessment)하거나, 고객들의 국제기준 준수 여부와 공급망을 모니터링(monitoring)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수산업에 종사하는 고객들은 어획 및 양식 관련 국제기준(best practice)을 준수하고, 관련 인증(certification)을 취득하고, 국제기준을 준수하는 공급망을 확보(supply chain management skill)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 2) Phase별 분석

지난 몇 년 동안 아시아의 은행들은 지속가능 이슈를 내부 경영시스템에 통합하는 데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 SUSBA는 1단계: 인지(Acknowledge)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2단계: 세부실행전략(Implement), 3단계: 효과증대(Increase Impact), 4단계: 지속가능한 미래계획(Achieve Sustainable Future)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진행 성과를 분석한다.

SUSBA는 하위 지표를 이러한 네 가지 단계로 분류하고 각 단계에서의 진행 상황과 다음 단계로 연동되는지 살피고자 하였다. 또한 선도적으로 이를 실행하고 있는 3개 국제 은행(BNP Paribas, Standard Chartered 및 ING Group)의 평가 내용을 함께 공유함으로써 이를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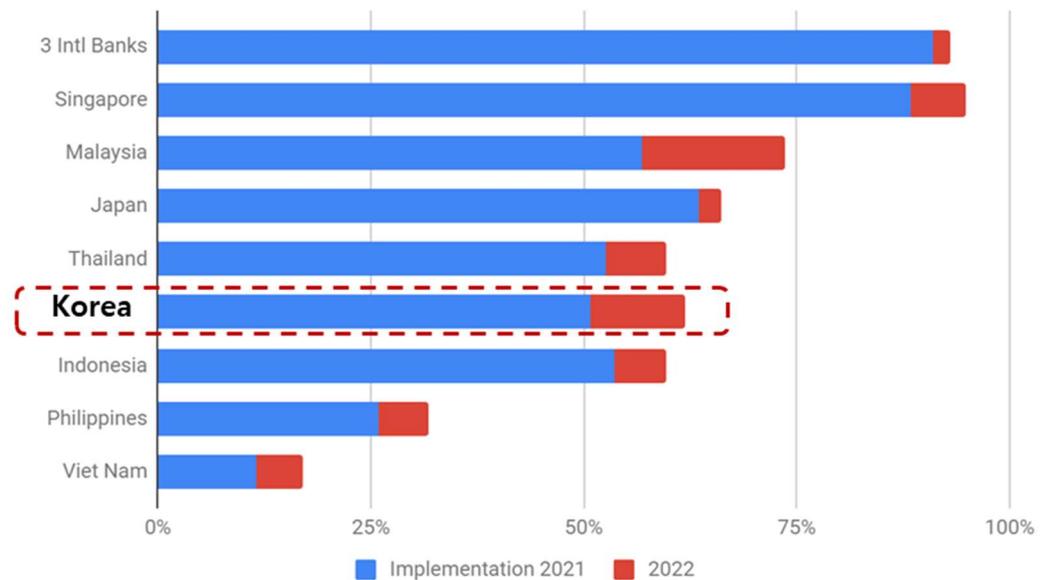
Phase 2

**Phase 2. 세부실행전략 (Implement, 27 개):**

**(필요성)** 지속가능 금융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관련 전략을 세우고 난 후, 은행은 관련 전략을 조직 전체에 전파하고, 이를 실천해야 한다. 모든 조직의 업무 프로세스에 지속가능 금융 실천전략을 심기 위해서는 ESG 전담 부서를 중심으로 세부적인 실행전략을 마련하고, 전사 임직원 대상 환경 및 사회리스크 정책 및 업무 프로세스 관련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세부전략)** 관련 전략으로는 환경 및 사회리스크 관련 부정적인 영향이 강한 사업(ex. 화석연료 기반 발전소 건설 등)에 대한 금융지원을 중단하는 배제정책(Exclusionary principle)이나 지속가능 금융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녹색금융 상품 및 서비스 개발 등이 있다. 향후, 기후뿐만 아니라 자연손실관련 리스크에 대해서도 확장할 필요가 있다.

**(국내현황)** 한국은 기후리스크 관리를 위한 정책 수립 및 목표설정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화석연료 기반 발전소 건립 등에 대한 금융지원에 대해 배제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산업별 금융 배출량(Finance emission by Sector)을 측정하고, 에너지 산업 금융배출량 감축계획 등을 수립하고 있다. 자연손실 문제에 대해서는 인식(acknowledgement) 하고 있으나, 세부전략은 미흡한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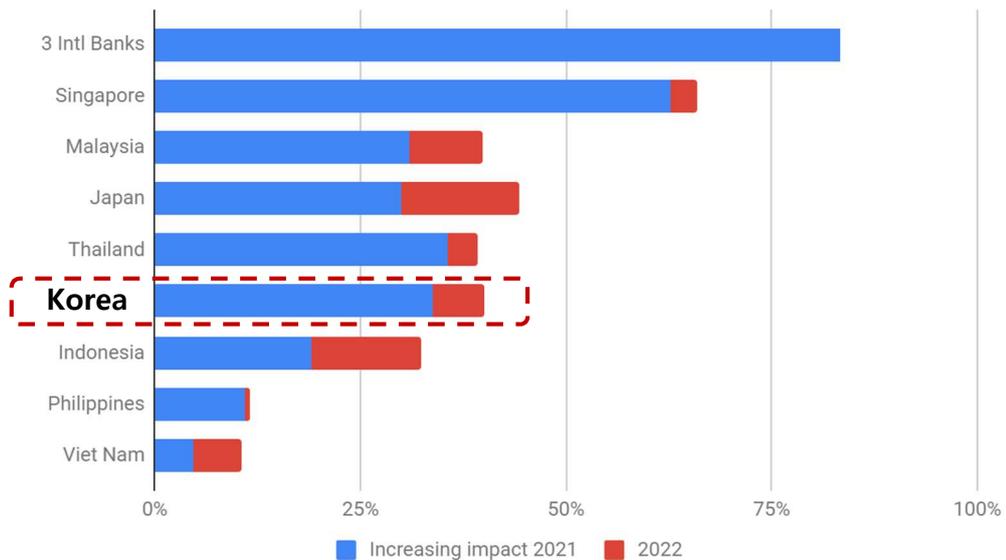
Phase 3

**Phase 3 효과증대(Increase impact, 21 개):**

**(필요성)** 은행은 지속가능 금융 관련 전략과 세부 수행계획을 세우고 나면, 그 효과를 증대하기 위해 고객과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고객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고객의 환경 및 사회리스크 관련 계획을 검토하거나, 대출 약관에 환경 및 사회리스크 관련 조항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이 있다.

**(세부전략)** 은행은 기후관련 물리 및 이행리스크에 노출이 높은 산업 포트폴리오를 파악해야 한다. 은행의 기후관련 정책은 향후 자연손실관련 산림훼손이나 담수 스튜어드십 등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은행은 고객들이 국내 법뿐만 아니라 국제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 해야 한다. 은행은 고객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고객들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환경 및 사회리스크관리 효과를 증대시켜야 한다.

**(국내현황)** 우리 은행들의 고객협력 현황은 아직 낮은 수준이다. 은행들은 아직 고객들에게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경영활동을 할 것을 요구하거나 경영활동을 모니터링 하는 역량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객의 거래처의 경영활동까지 파악하는 공급망 추적성(Supply Chain Traceability)도 갖추지 못한 상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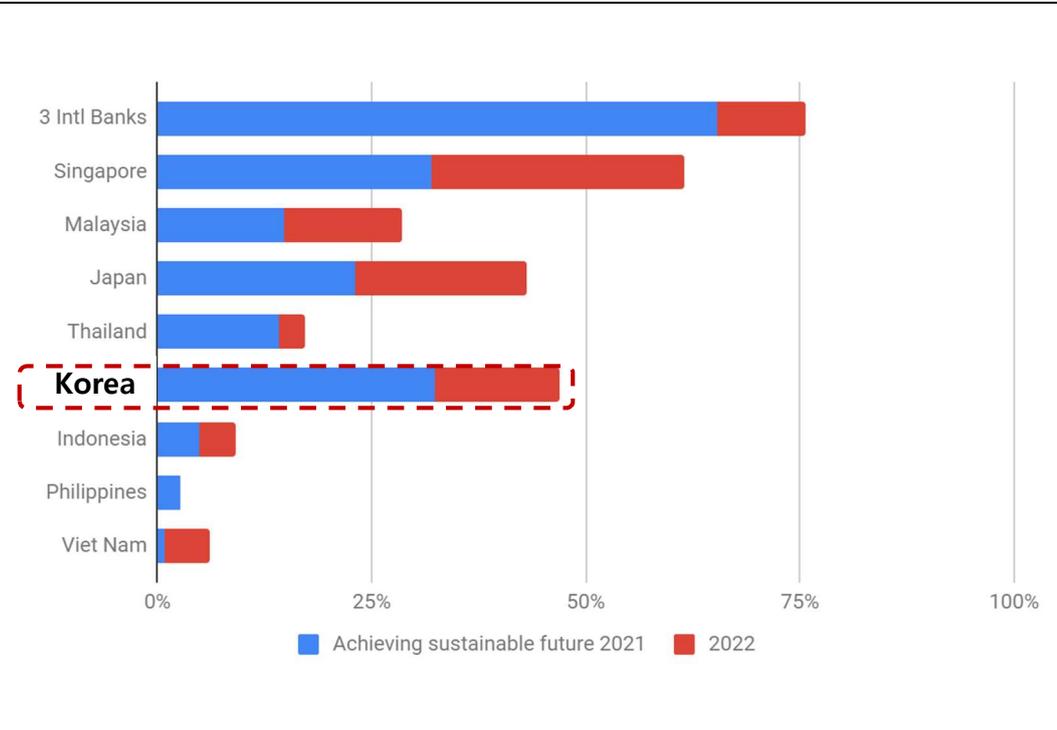
Phase 4

**Phase 4. 지속가능한 미래 계획 (Achieve Sustainable Future, 13 개):**

**(필요성)** 고객협력 등을 통해 효과를 증대하는 노력만으로는 2050 기후 및 자연손실 관련 보전 목표에 충분히 대응할 수 없다. 2050 넷제로와 생물다양성 증대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미래지향적 시나리오에 기반한 신뢰성 높은 이행계획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세부전략)** 이러한 목표달성에 실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과학에 기반한 목표와 중간목표(interim target)를 세우고, 포트폴리오 조정을 위한 시나리오를 설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탄소관련 공시 국제기준(TCFD)에 맞춰 금융배출량, 위험량 산출, 감축목표 등을 공시해야 한다. 탄소배출 감축 관련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 경영진들은 미래지향적 시나리오 등 지속가능성에 대한 이해를 갖춰야 한다.

**(국내현황)** 국내 은행들은 탄소배출과 관련한 수준 높은 이행계획(Transition Plan)을 세우고 경영진들의 승인을 거쳐 이를 수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섹터별 과학기반 목표를 설정하고, 금융배출량 감축 목표를 실천 중이다. 다만, 이러한 계획이 기후리스크에 치중되어 있어 향후, 자연손실 관련해서도 중장기 계획과 감축목표 등을 마련하고 관련 국제기준(TNFD)에 맞춰 이를 공시하며, 경영진들은 자연손실 관련 전문성을 키워야 할 것이다.



## 2. 국내 은행들의 지속가능금융 도입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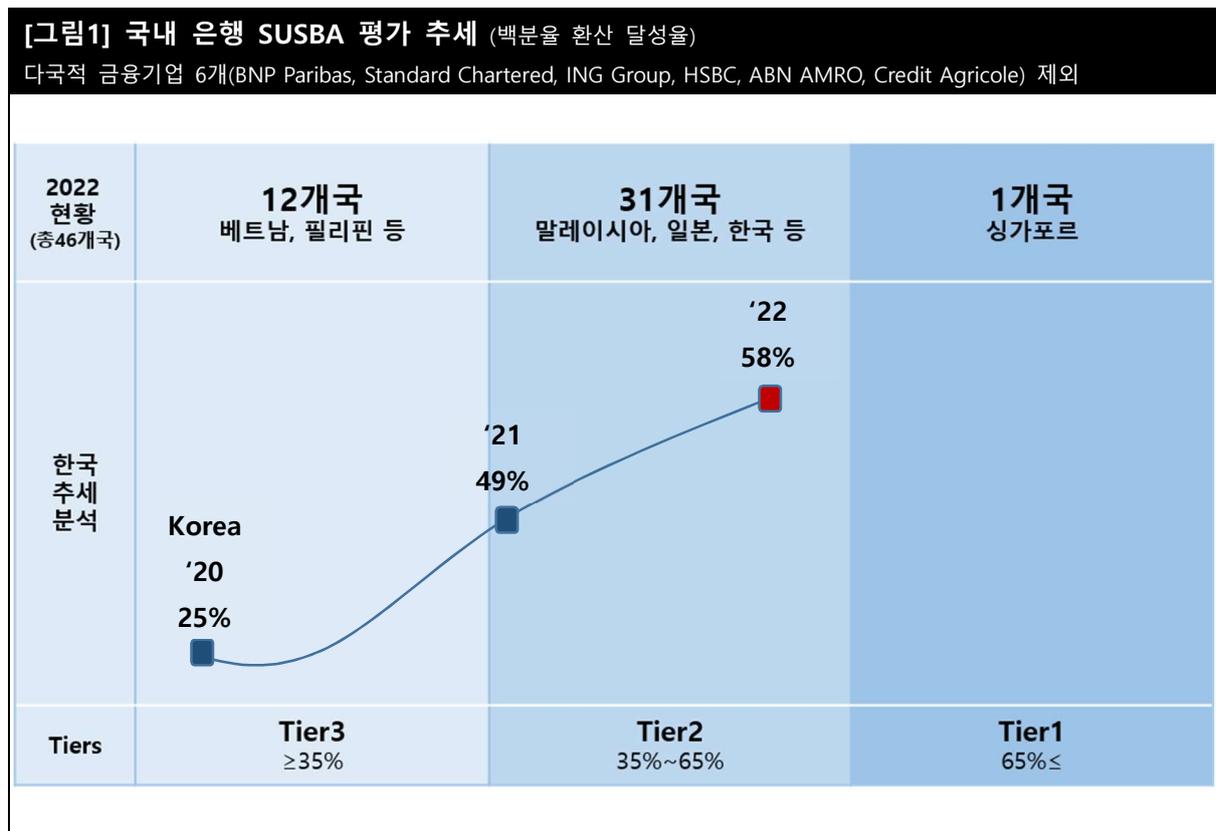
### 1) 평가 결과 요약

기후 및 환경, 사회리스크관리 역량 크게 향상

SUSBA 2022 평가에 참여한 국내 시중은행 5개社(신한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KB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IBK기업은행)는 **평가지표 76개 중 평균 49개**에 대하여 전체(fully met, 39개) 또는 일부(Partially met, 10개)가 충족된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지표 결과를 백분율로 환산<sup>3</sup>하면, 아시아 국가 중 싱가포르 82%, 일본 61%, 말레이시아 61%에 이어 **한국이 전체 평가지표 중 58%를 충족시켜 상위권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시중은행들이 기후 및 환경, 사회리스크 대비 역량을 꾸준히 키워온 결과이다.

'20년(25%) → '21년(49%) → '22년 (58%)로 최근 3년 사이 크게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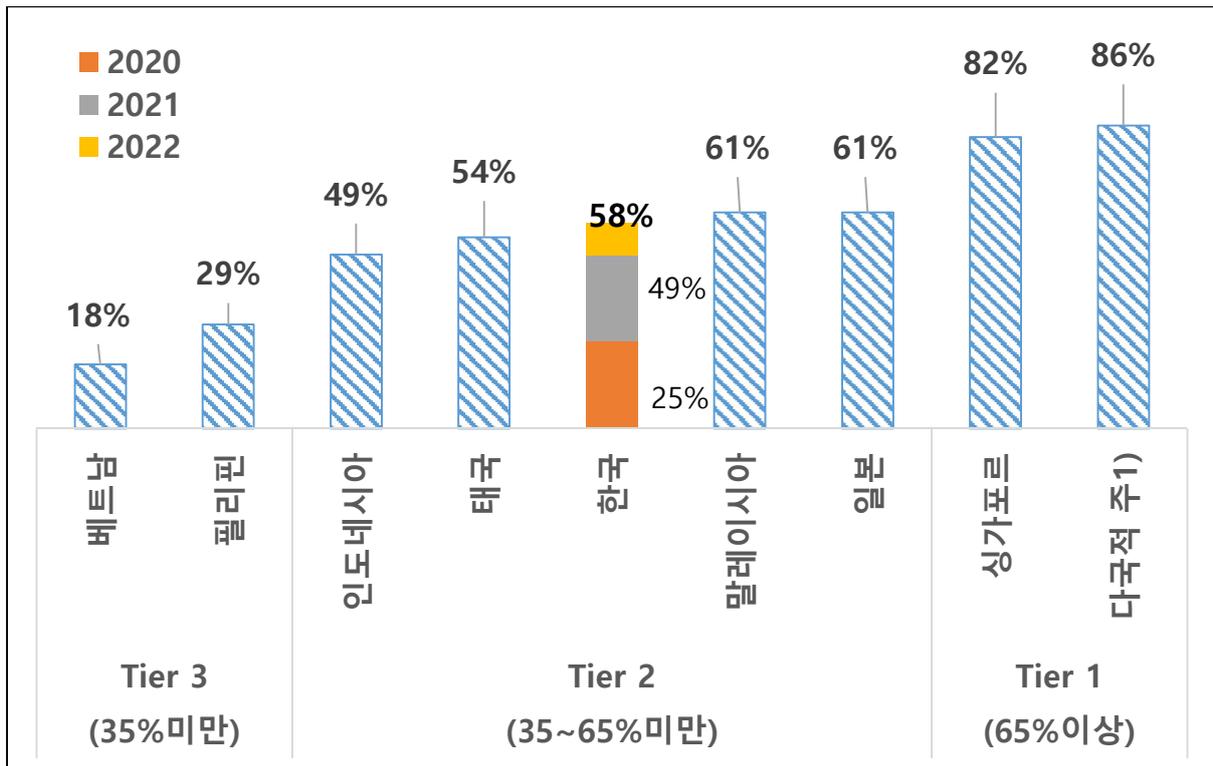
국내은행들은 '21년과 '22년에 ESG, TCFD, SBTi 등 주요 이니셔티브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자발적인 지속가능금융 도입으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어 냈다, 평가 대상 5개 은행간의

<sup>3</sup> 평가지표에 대하여 전체충족 1점, 부분충족 0.5점, 불충분 0점으로 점수화하여 합산한 총점을 모든 지표를 만족시킬 경우를 100%로 보고, 백분율로 환산하는 방식(76점=100%)

격차가 크지 않은 가운데, 선두인 신한금융그룹(68%)과 KB금융그룹(65%)이 Tier 1 그룹(평가지표 중 65%이상 충족)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고, 우리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IBK기업은행이 Tier 2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Tier 2에 속한 3개 은행은 2021년, 2022년 사이 지속가능금융 도입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Tier 1 그룹과의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하였다.

평가 대상 국가들을 살펴보면, Benchmark가 되는 다국적 은행들의 평균은 86%로 평가 항목 전반에 대하여 인정을 받았고, 그 뒤를 이어 싱가포르가 유일하게 80%대를 넘고 있다. Tier 2에서는 일본과 말레이시아가 공동으로 61%로 선두에 위치하였으며, 한국은 Tier2 중 2번째로 높게 평가 되었다. 국내 은행들이 처음으로 SUSBA 평가를 받았던 '20년에, ASEAN 국가들 보다 뒤쳐졌던 점을 감안하면 국내 은행들의 지속가능금융 도입을 위한 노력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 주요 국가별 평가지표 비교



주1) 여러 국가에서 활동하는 다국적 금융기업 6개(BNP Paribas, Standard Chartered, ING Group, HSBC, ABN AMRO, Credit Agricole)로 구성, ESG 관련 국제적 모범 금융기관

## 2) 분야별 세부 평가

구분	은행 책임(Bank Requirement)	고객 협력(Client Expectation)
	[그림 3] 책임주체별 평가지표 분석결과 	
한국 평균	<b>65% (39.4/61개 평가항목)</b> 은행책임 분야 총 평가 항목수는 61개	<b>30%(4.5/15개 평가항목)</b> 고객협력 분야 총 평가 항목수는 15개
설명	은행이 주체가 되어 실천하는 분야로 기후변화 및 자연손실, 사회문제 (대량해고, 인권유린, 노동착취 등)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수립 및 실천, 미래 계획을 마련하는 업무 등	평가지표 중에서 은행이 전략을 수행하면서 그 효과를 증대(Increase Impact)하기 위해 고객과의 협력이 필요한 분야를 의미

### 고객 협력 (Client Expectation) 분야 약세

SUSBA 평가지표(76개)를 은행 책임(Bank Requirement) 분야(61개)와 고객 협력(Client Expectation) 분야(15개)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글로벌 트렌드와 마찬가지로 국내은행들에서도 은행 책임 분야(65%) 보다 고객 협력 분야(30%)에서 약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 책임(Bank Requirement)** 분야란 평가지표 중에서 은행이 주체가 되어 실천하는 분야로 기후변화 및 자연손실, 사회문제 (대량해고, 인권유린, 노동착취 등)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수립 및 실천, 미래 계획을 마련하는 업무 등을 의미한다. 은행 책임 분야의 사례로는 기후변화, 자연손실 및 사회리스크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에 대한 금융지원을 금지하는 배제원칙(Exclusionary Principle)을 들 수 있다. 에너지 산업에 대한 배제원칙을 세우면 석탄 관련 채굴사업이나 석탄원료에 기반한 화력발전산업과 같이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한 노출이 큰 산업에 대해 신규 금융지원을 배제할 수 있게 된다.

**고객 협력(Client Expectation)** 분야란 평가지표 중에서 은행이 전략을 수행하면서 그 효과를 증대(Increase Impact)하기 위해 고객과의 협력이 필요한 분야를 의미한다. 사례로는 환경 및 사회리스크 관련 고위험군(High Risk Profile)에 속하는 고객에 대해 구체적인 이행계획(Transition Plan)을 수립하도록 요구하고, 이행과정을 모니터링(monitoring)하는 업무, 기한만료가 있는 인증(Certificate)을 받고 기한내 의무를 이행하도록 모니터링하는 업무, NDPE, RSPO, SBE FI 등 글로벌 이니셔티브(Global Initiative) 가입 및 인증을 독려하는 업무 등이 있다.

은행이 중장기적으로 목표로 하는 넷제로(Net Zero)나 생물다양성 증대(Nature Positive)와 같은 목표는 은행 자체만의 노력으로 도달할 수 없는 거대한 담론이다. 이러한 목표에 가까이 다가가고 실질적으로 기후변화와 자연손실, 또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 문제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 전체가 노력해야 하며, 은행은 자신의 노력과 함께 은행 자산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포트폴리오의 차주인 고객과의 협력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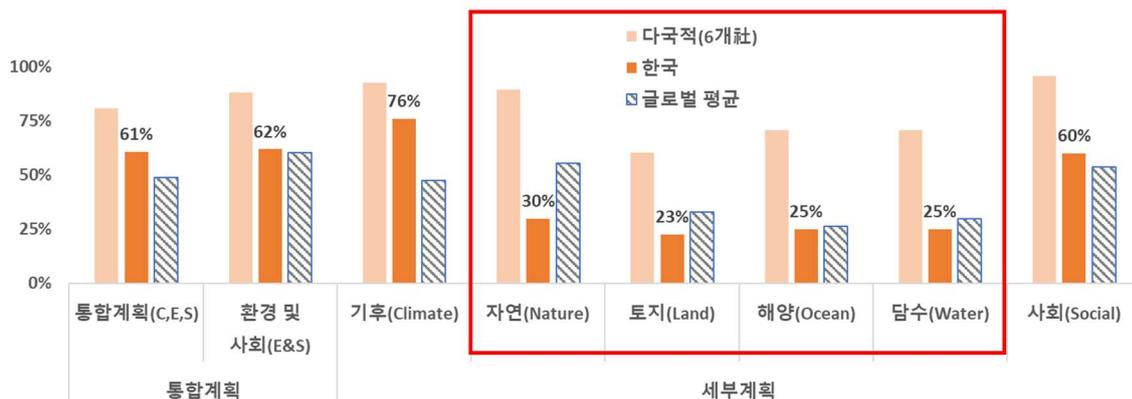
WWF 역시 Tier 2(지표 중 35~65% 미만 충족)에 속한 은행이 Tier 1(지표 중 65% 이상 충족)에 속하기 위해서는 고객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Reinforce Client Expectation)을 조언하고 있다. 실제로 SUSBA 평가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는 싱가포르, 일본, 말레이시아에 속한 은행들은 '22년 팜오일 생산 기업(Upstream client)에 대하여 NDPE, RSPO 인증을 가입하도록 권유하여 고객협력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자연분야 (토지/ 담수/ 해양분야) 보강해야**

SUSBA 평가지표(76개)를 섹터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국내 은행들은 기후, 환경, 사회 전반에 영향을 주는 통합적인 전략수립분야는 글로벌 평균을 상회하는 반면 분야별로 세분화된 전략수립 측면에서는 글로벌 평균을 하회함을 알 수 있다.

리스크요인을 세분화하여 분석한 결과, 기후 및 사회분야 세부전략은 글로벌 평균을 상회한 반면, 토지, 해양, 담수 등 자연손실 관련 세분화된 분야에서 전략수립 및 실천이 미흡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 리스크 요인별 평가지표 분석결과



**[참고]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연계성 강화**

많은 환경전문가들은 기후위기(Climate Change)와 생물다양성 손실(Biodiversity Loss)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하나의 쌍둥이 위기(Twin Crisis)라고 진단하고 있다. 지난 '21년 6월 기후위기 전문가집단(IPCC)과 생물다양성위기 전문가집단(IPBES)은 공동 워크숍을 열고 두 문제의 복합성과 연결성에 대해 논의하고 보고서<sup>4</sup>를 발표한 바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생물다양성을 내포하고 있는 해양, 담수, 토지와 같은 자연자본은 기후위기를 초래하는 주요 요인인 온실가스(Greenhouse Gas)를 흡수하고 이를 정화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러한 자연생태계(Ecosystem)의 파괴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약화시키고 기후재난과 같은 극단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기후재난은 다시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파괴하게 하는 등 악순환을 초래한다. 위의 사례를 포함하여 전문가들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문제가 하나의 복합위기라는 사실을 논증하였다.

우리 금융기관들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기후위기 대응전략만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방식(Silo) 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대기오염 방지와 함께 토지, 해양, 담수와 같은 자연생태계를 보호하고, 이를 구성하고 있는 생물다양성 보전 전략이 뒷받침 되어야 가능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이와 같은 사실은 최근 COP 15<sup>5</sup>에서 합의되었다고 발표된 '30X30' Initiative<sup>6</sup>에서도 잘 반영되어 있다.

**생태계별 중점 산업 관리**

은행은 토지, 해양, 담수 등 생태계별로 고위험지역과 활동(Risk Profile)을 인지하고 리스크를 측정, 관리하는 등의 은행의 책무(Bank Requirement)를 다하고 고객 협력사항(Client Expectation)을 발굴하여 실천할 필요가 있다.

**1) 토지생태계 보존관련 - 팜오일 산업**

토지생태계 관련하여 아시아 지역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할 분야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지역의 팜오일 산업이다. 팜오일은 세계 식물성 오일 소비의 41%, 유통의 60%를 차지하는 필수 소비재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에서 세계 팜오일의 85%를 생산하고 있다. 생활에 밀접한 소비재이기 때문에 인구증가와 함께 팜오일에 대한 소비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WWF에서는 팜오일 재배로 인한 산림훼손 및 생태계 변형(Deforestation and Conversion Risk)위험을 토지 생태계 보존을 위한 중점관리 리스크로 지정하고 금융기관들의 각별한 관리를 요구하고 있다.**

<sup>4</sup> IPCC & IPBES, Biodiversity and Climate change workshop report (2021.06)

<sup>5</sup>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캐나다 몬트리얼

<sup>6</sup> 오는 2030년까지 전세계 육지와 바다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정하고 보존 및 회복시키겠다는 협약

금융기관은 먼저 팜오일 생산과 관련 된 고객에 대하여 팜오일 관련 산림훼손 및 생태계 변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관련 국제기준(Deforestation and Conversion Free Policy)을 준수하고, 이와 관련된 인증(NDPE, RSPO 등)을 획득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또한 고객의 행동을 꾸준히 모니터링하며 지속적인 준수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직접적으로 팜오일을 재배하는 고객뿐만 아니라 **팜오일관련 산업(생산, 가공, 유통, 제조, 판매)에 종사하는 모든 기업 대해서 산림훼손 및 생태계 변형 방지관련 국제기준 준수와 관련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인권보호 국제기준이 준수되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팜오일 관련산업 가치사슬에 속한 기업들의 인증 뿐만 아니라 그 기업들이 거래하는 모든 상위(Up stream) 및 하위(Down stream) 공정 단계의 기업들에 대한 각종 인증 및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향후 한국 금융기관은 그들의 고객 중에 팜오일 생산에 종사하는 기업 뿐만 아니라 **이를 유통, 가공, 판매하는 기업들(Downstream Sector)의 추적성 확보(Supply Value Chain Traceability)**가 필요 할 것이다. 산업고도화를 이룬 국내 사정 상, 팜오일을 직접 생산하는 기업 보다는 팜오일을 활용한 유통, 가공, 판매업에 종사하는 기업의 수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들은 자신들이 거래하는 가치사슬상 상위 및 하위 기업들이 각 공정단계에서 관련산업의 국제기준을 준수하는지를 모니터링하는 추적성을 확보하고 이를 은행에 제공해야 한다. 은행들 또한 팜오일 관련 기업들의 가치사슬 추적성(Supply Value Chain Traceability)을 확보해야 불필요한 시장 및 규제, 평판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도와주는 도구로 **WWF의 팜오일 구매자 점수지표<sup>7</sup>(POBS)**를 활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2) 대기생태계 보존관련 - 에너지산업

국내은행의 대기생태계 보존관련 SUSBA 2022 지표 평가결과의 충족도는 평균 76%로 SUSBA 평가에 참여한 전체은행 평균 46%에 비해서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국가들의 경우, 감독당국의 제도적 지원이 선행되고 있음에도 은행들의 기후관련 전략 수립과 실천이 뒤쳐지고 있는 반면, 한국에서는 당국의 기후리스크관련 지침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분야까지 시장 주도적으로 기후리스크 관리 전략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up>7</sup> 팜오일 산업 관련 모든 기업들의 국제기준 준수여부 등을 점수화하여 비교가능하도록 한 사이트([WWF Palm Oil Buyers Scorecard - POBS \(panda.org\)](http://WWF.Palm Oil Buyers Scorecard - POBS (panda.org)))

국내은행들은 대부분 석탄을 원료로 하는 신규 화력발전 관련 사업에 대해 금융지원을 배제하는 배제원칙(Exclusionary Principle)을 수립하고 있으며, 파리협정 목표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는 장, 단기 과학기반 목표(Science based Targets)와 기간별 감축계획을 가지고 있다.

기후 관련 WWF 권고사항 중 국내은행들에게 해당되는 사항은 **사회적 효과까지 고려한 에너지산업 관련 이행계획(Energy sector specific Transition Plan) 마련**을 들 수 있다. 사회적효과까지 고려한 계획이란 이전계획(Transition Plan)에서 발생하는 화력발전 관련 근로자들의 대규모 은퇴계획이나 대량해고 문제에 대응하여 금융지원 상품 또는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방안을 의미한다.

### 3) 해양생태계 보존관련 - 수산물산업

해양생태계 보존과 관련하여 WWF에서는 수산물 분야(Seafood related Sector)를 중점 리스크관리 분야로 선정하였다. 수산물 산업 분야는 전세계 6천만명이 종사하는 분야로 세계인구 중 30억명의 단백질 공급원이기도 하다. 이렇게 중요한 산업분야인데 최근 지속적인 남획(overfishing)과 생물다양성 손실 등으로 생산성 하락과 자연자본 훼손 문제를 겪고 있어 기후변화, 토양자본 손실과 마찬가지로 관리해야 할 환경 리스크 분야로 설정되었다.

다른 중점관리 사업과 마찬가지로 은행은 수산물 산업 관련 환경 및 사회적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문제를 인식(recognition)하고, 기후 및 자연손실, 사회적 리스크 해결이라는 문제들과 함께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사차원의 단기 및 중장기 계획(Target & Transition Plan)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수산물 관련 국제기준<sup>8</sup>에 맞는 정책을 수립 및 공시(Policy implementation & disclosure)하며, 수산물 관련 산업 포트폴리오에 대한 환경 및 사회적 리스크(Assessment of E&S risk)를 측정하고 관리(Mitigation)해야 할 것이다.

수산물 산업 관련 환경 및 사회적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략 중 하나는 **수산물 생산 및 가공, 유통, 판매 등 모든 과정에 관련된 기업과 그들의 거래처에 대한 추적성(Supply Value Chain Traceability)을 확보**하는 일이다. 팜오일 산업에서와 마찬가지로 향후 관련 국제 규제 및 제도 동향은 생산에 종사하는 기업(Upstream) 뿐만 아니라 가공, 유통, 판매와 관련된

<sup>8</sup> 유엔 환경 계획 금융 이니셔티브(UNEP FI) Sustainable Blue Economy Finance Initiative (SBE FI)

2030 target for 14 Goal (life below water) of UN SDG(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기업(Downstream)에까지도 해양관련 국제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요구할 것이고, 금융기관들은 모든 가치사슬상 관련있는 기업과 그들의 거래처가 환경 및 사회적 리스크 관련 국제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관련 리스크를 관리하는 우선과제일 것이다.

**해양수산물 가치사슬 단계에 따라 기업에 요구되어지는 국제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어획 생산 (Wild catch production)
  - 지속가능성 인증 획득(Sustainability Certification), IUU 어획(IUU fishing)<sup>9</sup> 금지, 휘귀어종 보호, 어획량 조절 전략, 상어 지느러미 거래 금지, 친환경적인 어획 방식 및 도구 선택
- (2) 양식 생산 (Aquaculture production)
  - 지속가능성 인증 획득(Sustainability Certification), 보호지역(Protected Area) 및 생태적 민감지역 (Ecologically Sensitive) 관리, 환경영향평가 수행, 외래종 및 유전자변이종에 대한 위험관리, 지속가능한 먹이 조달 및 이용, 어류 건강 및 복지관리, 독성 화학물질, 안티박테리아, 살충제 등 사용 금지
- (3) Downstream (가공, 유통, B2C 판매)
  - 지속가능성 인증 획득(Sustainability Certification), 보호지역(Protected Area) 및 생태적 민감지역 (Ecologically Sensitive) 관리, IUU 어획(IUU fishing) 금지 등
- (4) 모든 업종
  - UN 인권기준<sup>10</sup> 준수여부, 국제노동기구(ILO) 권고사항 준수여부, 사회 및 지역사회 영향문제, 가치사슬 추적성(Value Chain Traceability) 확보, 에너지 관련 공시 등

**[표 1] 생태계별 중점 기후 및 환경, 사회(C,E,S)리스크 관리 방안**

생태계	토지	대기/기후	해양
관련 산업	팜오일	에너지	수산업
고객 협력 (Client Expectation)	- NDPE (No Deforestation <sup>11</sup> , No Peat, No Exploitation) 인증 - RSPO(Roundtable on Sustainable Palm Oil) 인증		(1) 어획(Wild Capture) - IUU 배제, 휘귀어종 어획금지, 어류친화적 도구 사용, 각종 인증 (2) 양식(Aquaculture) - 환경영향평가, 외래어종 및 개량어종 영향평가,

<sup>9</sup> IUU, 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 Fishery Practice (불법, 미보고, 미규제준수 어획 관행)

<sup>10</sup> UN Guiding Principles on Basic Human Rights (UN 인권에 대한 기본원칙)

<sup>11</sup> Supported by HCV/HCSA Approach

	-UN 인권관련 지도원칙 준수여부		어류복지 평가, 화학약품사용 억제 등 (3) 가공 및 유통,판매 - IUU 배제, 휘귀어류 배제, 보호지역 훼손 배제 등 (4) ALL - 모든 생산·가공과정의 노동에서 불법성 여부, 국제기준 준수여부
은행 책무 (Bank Requirement)	- <b>밸류체인 추적성 확보</b> - E&S Risk 측정 - 고객인증 모니터링	- 신규 화력발전소 금융지원 배제원칙 - 에너지 전환계획 수립(대량해고 등)	- IUU 배제 - Blue Finance 상품 및 서비스 개발 <b>-밸류체인 추적성 확보</b>

### 금융당국과 협력적 관계

WWF에서는 한 국가 내 은행간 SUSBA 평가 결과 격차가 크게 벌어진 경우일수록 금융당국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구속력 있는 규제를 마련하여 금융기관들 행위의 최소기준(Minimum requirement)을 마련하여 뒤쳐진 은행들의 기후 및 환경, 사회 리스크 대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 시중은행들의 SUSBA 평가결과를 보면 다른 국가 들에 비하여 은행간 격차가 크게 벌어지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그림 5 참조). 따라서 금융당국이 최소기준을 마련하여 국내은행 간 격차를 해소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국내 사정과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다.

SUSBA와 SUSREG<sup>12</sup> 평가결과를 비교해 보면, 한국에서는 글로벌 트렌드와 마찬가지로 국내은행들의 SUSBA 평가 결과가 SUSREG 평가보다 월등히 좋은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SUSREG 평가지표를 다시 규제(Requirement)와 지원(Support)<sup>13</sup>로 구분하여 결과를 비교해 보면

<sup>12</sup> WWF GFRI의 활동 중 하나인 SUSREG(Sustainable Financial Regulations and Central Bank Activities)는 중앙은행과 금융감독기관의 지속가능금융 도입 현황과 진행 성과를 파악하고, 이를 공유하기 위하여 2021년에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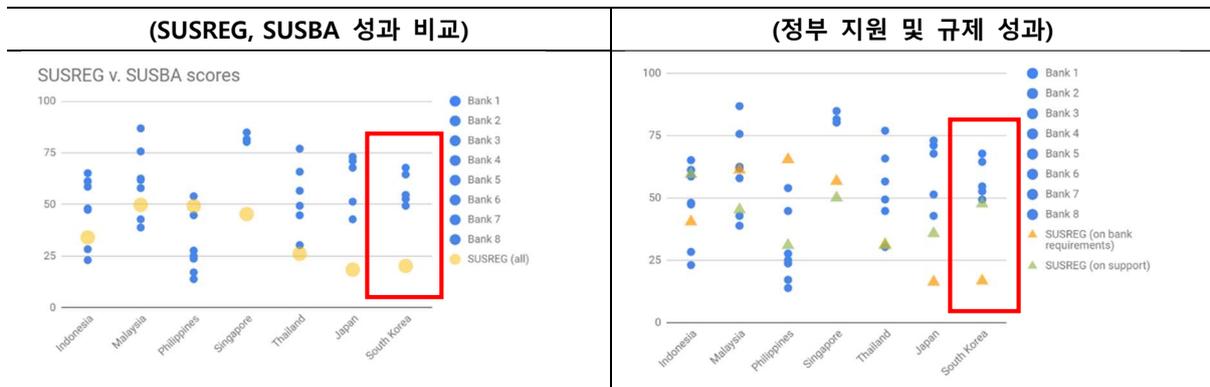
<sup>13</sup> 지원정책(Support Policy)으로는 관련 법제 마련 (k-taxonomy, 그린본드 발행 관련 규정 및 가이드라인 마

국내 정부당국의 정책적 지원(Support Policy) 이 규제(Requirement)보다 평가결과가 강화되어 있으며, 이러한 정책적 지원노력이 민간 시장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여진다.

앞으로도 국내 금융기관들은 정부당국과 긴밀히 협력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ESG 금융시장을 조성하고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로 시장이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현재 규제자본 관련 규정은 BCBS (바젤위원회)의 규정 발표<sup>14</sup> 를 기다릴 필요가 있으나, 은행 스스로의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기후 및 환경, 사회리스크 관리 전략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림 1] SUSBA, SUSREG 성과 비교



련), 투명한 정보 제공 및 환경 조성 (ESG 공시 가이드라인 마련, Envinance 시스템 구축 등), 녹색금융 자금 지원 및 수요확대 정책 등

<sup>14</sup> BCBS, Frequently asked questions on climate related financial risk (2022)

## 2022 SUSBA 평가보고서의 한국 시사점

### 기후위기관리 분야 역량 강화 됨

우리 시중은행들은 SUSBA 평가지표[’20년 20% → ’21년 49% → ’22년 58%]를 통해 알 수 있듯이 ESG를 포함하는 위기관리 능력 제고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였다. 그 결과 ’22년에는 싱가포르(82%), 일본(61%), 말레이시아(61%)에 이어 아시아에서 4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기후리스크, 자연손실 및 사회적리스크 관리 역량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다. 국내 시중은행들이 SUSBA평가에 최초로 참가한 ’20년에는 ASEAN국가들에 비해 뒤쳐져 있었는데 비해 최근 3년간의 노력으로 리스크관리 역량이 크게 성장한 것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기후리스크 관리 능력이 뛰어나다는 점을 알 수 있는데, 기후리스크 관련 지표만을 대상으로 평가해보면 충족도는 평균 76%로 SUSBA 평가에 참여한 전체은행 평균 46%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시중은행들은 대부분 석탄을 원료로 하는 신규 화력발전 관련 사업에 대해 금융지원을 배제하는 배제원칙(Exclusionary Principle)을 수립하고 있고, 금융기관의 포트폴리오에서 발생하는 금융 탄소배출량(Financed GHG Emission)을 포트폴리오별로 측정하고 있으며, 파리협정 목표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는 장, 단기 과학기반 목표(Science based Targets)와 기간별 감축계획을 가지고 있다.

다른 국가들의 경우, 감독당국의 제도적 지원이 선행되고 있음에도 은행들의 기후관련 전략 수립과 실천이 뒤쳐지고 있는 반면, 한국 시중은행들은 당국의 기후리스크관련 지침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분야까지 시장 주도적으로 기후리스크 관리 전략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자연손실(토지/ 담수/ 해양분야) 분야로 확대해야

그러나 많은 기후위기 전문가집단(IPCC)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기후위기에 한정된 노력만으로는 탄소제로라는 목표를 달성하기에 불충분하다. 대기중에 방출되는 탄소 등 유해물질을 흡수하고 정화시킬 수 있는 자연자본(Nature Capital)을 충분히 보존하고 관리해야 기후위기 대응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다. 토지, 담수, 해양분야의 자연생태계는 대기중의 탄소를 흡수하고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생태계의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 생물다양성 관리야 말로 기후위기와 같은 환경 리스크에 대해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일 것이다. 이렇듯, 기후위기 관리문제와 자연자본 관리문제는 따로 분리할 수 없는 복합위기 문제이고, 통합적 관점으로 관리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토지 생태계 보존과 생물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팜오일을 생산하는 기업에 대하여 생산으로 인한 산림훼손 및 생태계 변형위험(Deforestation and Conversion Risk)을 관리하기 위해 관련 국제기준을 준수하고, 인증을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요구해야 한다.

해양 생태계 보존과 생물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산물을 생산하는 어획 및 양식기업(Wild catch / Aquaculture)에 대하여 관련 국제기준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야 할 것이다.

대기 생태계 보존과 생물다양성 확보를 위해서는 현재 시행 중인 화석 연료 기반 발전소에 대한 금융지원 배제원칙을 적용하면서, 화력발전소 이전계획(Transition Plan)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량해고 및 은퇴 문제 등 각종 사회문제에 대한 금융지원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담수 생태계 보존과 생물다양성 확보를 위해서는 해당기업들이 담수 스튜어드십(Water Stewardship) 이니셔티브에 가입하여 국제기준 준수 및 인증 획득을 위해 노력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 **가치사슬 추적성 (Supply Value Chain Traceability) 확보해야**

국내 은행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구체적 전략 중 하나는 **팜오일 및 수산업 관련 기업의 가치사슬 추적성을 확보**하는 일이다.

현재 산림훼손 관련 국제 입법동향을 살펴보면 유럽, 미국, 영국과 같은 대규모 시장에서 수입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유럽에서는 Green Deal을 통해 유럽으로 수입되는 팜오일 뿐만 아니라 가공처리된 팜오일이나 완제품에 대하여 모든 생산, 가공, 유통, 판매 과정에서 산림훼손 및 생태계 변형 관련 국제기준을 준수 하였는지를 인증할 수 있는 추적성 검증이 강화되고 있다. 모든 공정과정에 동원되는 노동력에 대하여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노동권이 존중되었는지, 불법성은 없었는지에 대한 추적성 또한 검증의 대상이 되고 있다.

EU의 수입규제 관련 입법활동이 미국, 영국에도 영향을 미쳐 관련 법<sup>15</sup>에 의거하여 팜 오일 관련

---

<sup>15</sup> Fostering Overseas Rule of Law and Environmentally Sound Trade (FOREST), US

Primary Legislation Environment Act, UK

수출업자에 대한 가치사슬 추적성 검사가 강화되고 있다. 앞으로는 팜오일 생산업자 뿐만 아니라 **팜오일 완제품 판매 과정에서 종사하는 모든 상위 및 하위 공정단계 사업체(Upstream, Midstream, Downstream Sector)에 대하여 국제기준 관련 인증을 확인하고, 고객 행동을 모니터링하는 능력이 환경리스크를 관리하는 주요 역량**이 될 것이다.

이러한 수입관련 규제는 팜오일 뿐만 아니라 해양수산물 관련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해양생태계의 보존과 생태계의 건강지표인 생물다양성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해양생태계를 이용하고 있는 수산물(Seafood)관련 산업에 대한 리스크관리가 필수적이다. 수산물을 생산하는 업체들뿐만 아니라 가공, 유통, 판매하는 기업(Downstream Sector)에 대해서도 관련 국제 기준 준수를 의무화 해야 하며, 그들이 거래하는 기업의 국제기준 인증여부에 대해서도 알고 있도록 해야 한다. 금융기관은 **해양수산물 관련 산업의 가치사슬에 연관된 회사들의 국제기준 준수 여부나 인증에 대한 정보를** 알고, 일정 수준 이상의 기업과 거래하는 것이 사업리스크를 줄이는 길이 될 것이다. 또한, **은행들은 고객이 거래하는 기업들의 국제기준 준수여부와 인증여부를 모니터링하는 가치사슬을 추적할 수 있는 능력(Supply Chain Traceability)을** 갖춰야 할 것이다. 이러한 능력이 환경 및 사회리스크 관리 역량의 핵심이 될 것이다.

환경 및 사회리스크가 금융기관의 실질적인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에 더 이상의 논쟁은 없다. 수출 비중이 높은 국내 기업들의 입장에서, 갈수록 강화되는 선진국의 환경 및 사회 관련 요구 조건(requirement)이 기업의 생산성과 수익성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도 모두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선제적 노력이 지속가능금융으로 가는 길임을 한국세계자연기금은 강조하고자 한다.



## [Contact Point]

### WWF Korea

15F, Standard chartered Bank Building, 47 Jong-ro, Jongno-gu, Seoul, South Korea

#### **DongLim Chung / 정동림**

Sustainable Finance Programme / Sr. Officer,

E-mail: [dchung@wwfkorea.or.kr](mailto:dchung@wwfkorea.or.kr)

Tel. 070 7434 4251

#### **Jiwon Lee / 이지원**

Sustainable Finance Programme / Officer,

E-mail: [jwlee@wwfkorea.or.kr](mailto:jwlee@wwfkorea.or.kr)

Tel. 070 7463 4234